

Ⅰ 제3회 서울노동권익센터 정기토론회: 2부 공개좌담회 Ⅰ

Seoul

Labour

Center

개소 1주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

- 공개좌담회 주요 내용과 답변 정리 -

2016.11.09.


서울노동권익센터

I. 개요

- ◎ 일시 : 2016. 10. 20(목) 15:50~18:00
-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 주요 참석자(3분 스피치)
 1. 나상윤(강서양천민중의집 대표)
 2. 이종명(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3.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센터장)
 4. 전명훈(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전문관)
 5. 김경란(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조직실 국장)
 6. 이상국(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업본부장)
 7. 이정미(노무법인 현장 공인노무사)
 8. 정진주(사회건강연구소 소장)

II. 세션별 주요내용 정리

1.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

1) 중간지대로서의 위상과 역할

- 부천의 경우, 초기에는 민주노총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였음.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였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음
- 조직화에 대한 욕심의 결과이기도 하고 모기관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던 결과이기도 함.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됨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부천과 다른 것 같은데,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노동조합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맡아 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역할을 한다면, 부천센터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 등에 있어서 자료 접근이 용이하고 공신력도 있다 보니 비정규직을 만나고 평가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함. 이런 면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그 폭이 훨씬 넓다고 생각함
-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다보니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음. 중간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함. 정부와 지자체 노동정책들에 대해 위상을 높여내는 측면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노조 입장만 요구할

수 없다보니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지대, 중립성이 존재함. 더불어 노동조합이 투쟁할 때 중재 역할도 했음

- 위탁기관이라 하더라도 중간지대 형성이 관건임. 위탁기관이더라도 지방정부의 공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예를 들어, 학교 노동교육도 그렇고, 노동법시민교육도 중간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탁이라면 지방정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2) 사업 범위와 내용에 대한 평가와 재고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하여 고민하다보니 민간위탁이자 중간지대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종의 한계가 있으며 많은 고민을 남기는 지점이기도 함
- 사업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센터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과 연동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사업의 확장도 좋지만, 재정과 인력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자기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 함. 아울러 굳이 센터가 해야 할 일인지 확장된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센터 사업(내지 서울시 노동정책 지원이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대 등)이 지역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임. 지역별로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줬으면 함. 노동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치구별로 하나의 공간에서 노동단체 및 지역단체들이 모여 협업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함

3) 민관협치의 역할과 기능 수행

-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협치임. 1부 토론회에서 정치적 우호성, 재단과 법인 등 지속가능성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정부와 협치가 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 정책에 개입한다거나, 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관료주의 등은 조심하면서 협치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가 민관협치를 통해 성공모델을 이끄는 건 부정할 수 없음. 그러나 협치 모델의 취약 내지 과장된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함. 시도들은 좋은데 실제로 주체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노동관련 민관협치 파트너십을 형성할 경우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만으로 답을 수 없기에 노동단체 및 권익센터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자치구 단위로 가면 취약한 모습을 보

- 입. 이런 부분에서 권익센터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기존 노동조합들이 지역이든 광역이든 참여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음. 노동조합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임. 노동조합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답변과 의견

- 자치구 노동행정 확산 문제, 노동자 참여 조직화 문제, 공간을 통해 지역사업을 하는 문제 등 서울시와 협치로 풀 문제가 많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앞으로 권익센터가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것임
- 직영으로 운영시 지방정부 행정의 정보와 공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노동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단점이 있고, 반면 순수 민간조직으로 운영시 반대의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음. 이 두 부분에 대한 장점을 적절하게 살릴 수 있는 방안, 협치를 모색해야 함. 현재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생각함
- 이는 단순히 지방정부 노동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서로 합을 맞춰가며 대응방식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2. 협력·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서울노동권익센터

1) 노동 관련 기관 간 허브 기능 강화

- 향후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를 비롯 자치구센터, 기타 유관센터가 확대되어 설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노동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노동권익센터가 지방정부,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 노동 관련 유관 기관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어 센터 간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원함
- 또한 지역의 노동단체가 지역 기반 없이는 조직화나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함. 지역 노동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중간에서 네트워크의 구심이 되어야 함

2) 지방정부-지역노동단체 간 허브 기능 강화

- 노동권익센터가 지역단체와 함께 지역-지방정부 사이 허브 역할을 통해 여전히 빠져있는 민간영역 사각지대 노동자, 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노동친화적 환경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 노동권익센터는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지역에서 노동자지원센터를 하는 노동단체가 서울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함
- 서울시 노동정책의 경우 여전히 행정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노동권익센터가 지역노동단체와 함께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고, 서울시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임

3)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원 연계 및 허브 역할 필요

- 교육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부터 법률구제 사업까지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음
- 서울지역 노동인권교육 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대상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노동권익센터, 특히 센터 교육홍보팀의 많은 협조와 역할 때문에 가능했음
- 서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화하는 데에 있어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민관을 연결하는 중간플랫폼 혹은 허브로서의 역할 또한 요구되어 질 것이라 생각함

4) 학교 밖 청소년 등 기존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대상 교육 및 자원 연계 지원 필요

-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을 통한 학생 노동인권교육이 제도화되고 정착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서울시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주무행정기관으로서 조례에 명시된 관련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함.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가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노동문제 해결 위해 지역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수평적 연대 필요

- 2010년 지방정부 바뀌면서 지역노동센터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됨. 지방정부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역노동센터 설치되고 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정규노동

자들의 삶이 개선되었음

- 센터나 노조 모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대변과 권리 옹호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연대관계가 상당히 취약함
-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 조직역량과 노하우, 지역노동센터가 가진 사업에 대한 신속한 의결구조와 추진력을 결합하면서 공통의제를 가지고 느슨한 연대를 시작해야 함
- 현 상황에서는 일상적 소통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대해서부터 출발해야 함. 공통의제를 만들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상적 소통구조를 복원할 수 있음

6) 성과 위주가 아닌 지역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작년에 역량에 비해 많은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음. 그런 과정에서 활동가에 대한 실무교육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센터에서 파견한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도 마찬가지임
- 노동권익센터 활동 평가에는 지역 현장에서 센터가 지원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지역노동단체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의 처우개선 필요

7) 지역노동단체의 권리구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역단체가 권리구제를 하기 어려움. 노동권익센터나 서울시에서 지역단체가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대응방안 매뉴얼을 만들거나 지역단체와 연계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함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답변과 의견

- 자치구노동센터, 기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허브역할을 통해 센터 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센터가 각 지역 노동단체와 서울시 간에 서울시 노동허브로서의 역할을 현장밀착형 서울시 노동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상황임. 향후에는 학교 안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서 교육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확대 강화 되어야지만 교육체계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임
-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은 현재 계획이 확실하지 않음. 진행이 될 경

- 우 노동교육 허브라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하겠음
- 센터 간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익센터 뿐만 아니라 자치구센터, 유관기관, 지역 노동상급단체와 사업을 통한 일상적인 소통이 중요함. 각 단체 및 기관과 공동 의제를 만들고,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단체 및 기관 간 일상적 소통 복원을 모색하겠음
- 자치구센터 및, 지역 노동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 속에서 노동권익센터의 허브기능을 평가하고 강화하고자 함.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의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3. 서울노동권익센터 주요사업 평가와 제안

1) 센터 주요사업 참여에 대한 소감

- 권익센터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 권리구제지원은 승소나 인정실익 등을 떠나 취약계층의 부당한 권익침해에 대한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연구조사 참여 시 센터에서 연구전반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만족도가 높았음

2) 사업을 기반으로 한 중간지대로서의 역할 기대

- 서울시 노동행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센터가 진행한 사업이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해져야 함
- 가령, 연구결과를 서울시 노동협치에 활용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 지역과의 연계는 ‘재미’가 기반이 될수록 연대와 참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협치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며, 이를 보고 공무원들이 감명받아 변화되는 것이 좋은 경로임

3) 향후 사업의 방향에 대한 제안

- 이동노동자 쉼터의 경우 공간적 개념이 아닌 사회복지 측면과 연계될 수 있는 허브역할 강화,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권리구제의 경우 1회성 권리구제지원을 넘어서서 1개 사업장의 동일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 심화된 권리구제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함
- 권리구제 외에 교육사업이나 힐링사업 등과 연결되어 지역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방향을 구상해야 함

- 단편적인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이외에 정책과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통계나 기초데이터 확보, 장기적인 연구계획 수립, 서울시와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아젠다 형성 등을 실시해야 함
-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배치를 해야 함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답변과 의견

- 쉼터의 경우 복지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으니 호응도가 높음.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음
- 상담이나 권리구제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 정책연구 분야는 결과물이 실제 정책 또는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며, 쉼터, 감정노동분야를 비롯한 몇 가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었음. 향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겠음

III. 청중 질의/의견(Post-it)과 답변

1. 노동권익센터에 묻는다

Q. 중고령,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지역활동을 적극 지원해달라

A. 중고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안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을 점검하면서 배치하겠음.

Q. 그 동안 받았던 상담 중 최악의 상담은 무엇인가요?

A.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크게 보면 노동권익침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증거부족, 근로시간증명부족 등)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례가 안타까웠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막무가내식으로 폭언하며 상담에 임하거나,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담당노무사를 힘들게 하는 시민도 있었는데 상담노무사들이 감정소진, 직무소진을 경험하게 되어 힘들었음

Q. 2016년도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 주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A. 하반기에 지역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마감되는데, 각 지역별 단체들이 스스로 노동권익향상, 지역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그 성과를 모으는 사업이 기대되고 있으며, 일상적인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잘 마무리할 예정임

Q. 노원복지센터의 “경비노동자모임”처럼 권익센터가 노동자들의 모임을 만들고, 이의 운영을 노조와 함께 하면서 노조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게 “마중물”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A. 노원복지센터의 많은 노력의 결실로 경비노동자모임이 자리를 잡았음.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고, 진행된 선례를 잘 참고하겠음. 상담, 교육, 연구, 협력사업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스며들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음. 내년에 감정노동사업이 새롭게 장착되는데, 사업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Q. 개소 1주년, 스스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고 싶나요?

A. 센터 구성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자면 100점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함. 그러나 조직의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아직 신생조직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점,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활성화와 역량강화 등 내부적 관리체계 등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됨. 그래서 종합하자면, 한~80점? ^^;;

Q. 노동권익센터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거나 형성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권익센터가 특별한 제한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필요한 조직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음. 양대노총 산하 조직(산별노조, 지부 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력하고 있음. 예를 들자면, 실태조사/연구조사의 경우 노동조합의 협조와 협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연맹,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희망연대케이블통신노조, 콜센터지부, 셔틀연대, 공공운수노조, 자노련, 여성노조 등 정파와 경계를 초월하여 협의하고 있음

Q. 서울의 노동권익 아젠다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A. 아젠다에 대한 고민은 언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에 동의함. 아젠다를 설정하는 방법론 내지 과정은 다양하게 구사될 수 있다고 보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모아서 구조화할 수도 있고, 서울의 산업과 노동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됨. 아젠다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Q. 팀 간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A. 권익센터는 주간회의, 팀장회의, 주요안건별 TF회의 등 필요한 회의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아직은 큰 규모의 조직이 아니어서 팀 간 업무협조가 어렵지 않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고 봄. 팀 간 업무협조의 불화나 미루기 등으로 인해 업무에 피해를 보는 경직된 조직문화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는 생각됨

2. 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

Q. 알바지킴이를 통해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나 경험이 궁금해요

A. 모니터링사업을 진행중이며, 결과가 취합되면 해당주제로 포럼을 진행할 예정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Q. 센터 인력 확충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아닌 것 같음. 지역센터를 늘려야 함

A. 현재 지역센터 확충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가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센터와 신규센터가 서울의 노동권익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업과 지원을 추진하겠음

Q. 센터 인력 확충이 문제해결의 핵심이 아닌 것 같음. 지역센터를 늘려야 함

A. 현재 지역센터 확충과 관련해 서울시가 추가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센터와 신규센터가 서울의 노동권익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업과 지원을 추진하겠음

3. 당부와 건의, 응원의 글

1) 당부/건의의 글

- ① 현장에 가까이 귀기울여 주시길...
- ② 20~30대 청년노동자의 직장생활 이야기가 담겼으면...
- ③ 노동권익센터는 노동법을 잘 지키나요?
- ④ 서울노동자의 권익만 챙기지 마시고, 스스로의 노동환경도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도 포함입니다. 격무로부터 벗어나길 바랍니다.
- ⑤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정책들이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⑥ 내년에는 충원이 되나요?
- ⑦ 일을 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허브역할 강화!!
- ⑧ 비정규직들이 맘 놓고 방문하게 운영해주세요
- ⑨ 활기찬 공간이 되기를!
- ⑩ 노력해서 도출한 소중한 성과들을 확실한 정책으로 관철시키시길.. 수많은 노동자에게 희망으로 다가가길...
- ⑪ 너무 바빠보여요, 구성원들의 노동인권도 챙겨주세요.
- ⑫ 서울노동권익센터 상근자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건강한 센터를 위하여~!

2) 응원의 글

- ① 곁에 두고 오래만난 ‘벗’같은 존재가 되길!
- ②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Fighting!
- ③ 노동권익센터 최고예요!
- ④ 더욱 고생해주세요~
- ⑤ 더욱 내실있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 ⑥ 서울노동권익센터,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⑦ 앞길이 구만리네요...ㅋ ㅋ
- ⑧ 새봄, 건강해져서 술 한잔 해주세요~
- ⑨ 이제 한 살이니 열 살까지 갑시다.
- ⑩ 노동자의 휴식처, 노동자들의 바람막이, 서울노동권익센터 파이팅!
- ⑪ 노동자들의 저수지가 되어주세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갑시다.
- ⑫ 비정규노동자의 참 벗 & 울타리, 서울노동권익센터 멋지다 ^^
- ⑬ 노동권익센터 → 노동인권센터로!!! 발전 이루시길

- ⑭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노동권익센터가 더욱 나서주시길.
- ⑮ 고생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노동정책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세요.
- ⑯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중추역할을 해 주시길..